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극단 굴렁쇠 제 20회 정기 송년공연

몽 때 개 때

이만희/작 김귀선/연출

■ 2000년 12월 22일(금) 오후 7시
23일(토) 오후 4시, 7시

■ 속초문화 회관

주관 : 극단 굴렁쇠

주최 : 속초예총,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후원 : 강원문화재단, 속초시, 교차로,
YBS영동방송

기획 : 22C 기획(636-3631)

공연문의 : (033)631-8070

용띠 개띠



가을의 마지막 時間을 알려주던 찬비가
오늘은 겨울의 始作 속에도 다가와 마른
마음 한구석을 차분히 적시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조용히 내리던 빗방울들이 불현
듯 하얀 눈송이로 변하는 오솔 솜사탕
놀이로 東海의 겨울은 그렇게 자주
시작되곤 했습니다. 올해는 왠지 가슴
시린 힘겨움의 소문이 무성한 채 겨울이
우리 바다마을에 여지없이 다가 왔답니다.
이유 없는 투정도 다소곳 감싸 주시던
엄마의 마음처럼 푸근한 누군가의 손길이
심히 그리워지는 계절의 한가운데 서서 텅
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일상의 言語로 응얼진 마음
한구석을 살며시 녹여주는 조용한 빗줄기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엄마처럼, 푸근한 누군가처럼 그는

굳은 마음 구석구석을 다정히 어루만져 콧등 시큰거리는 찜한 가슴 한 덩이를 말없이
선물하고는 미소로 돌아서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는 실상 그의 목소리조차 들은 적은
없지만 그의 작품속에서 너무도 소중한 마음의 만남을 여러 차례 가지곤 했습니다. 우리
삶의 혹독한 겨울도 뒤돌아보면 모두가 노래가 됨을 잔잔히 알려주던 그분이 바로 이
만희선생이라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의 작품에서 한 아름씩 안고 왔던 감동의 그리움들을
"극단 굴렁쇠"의 송년 공연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모두에게 너무도 즐거움이라합니다.
실로 부요함은 마음에서 온다는데 풍성한 웃음을 가진 넉넉한 마음 모두를 진심으로 초대
합니다.

삶을 아끼는 한사람 한사람의 觀客을 진실로 사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초대의 글



박 영 미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

2000년 12월 겨울비 내리는 오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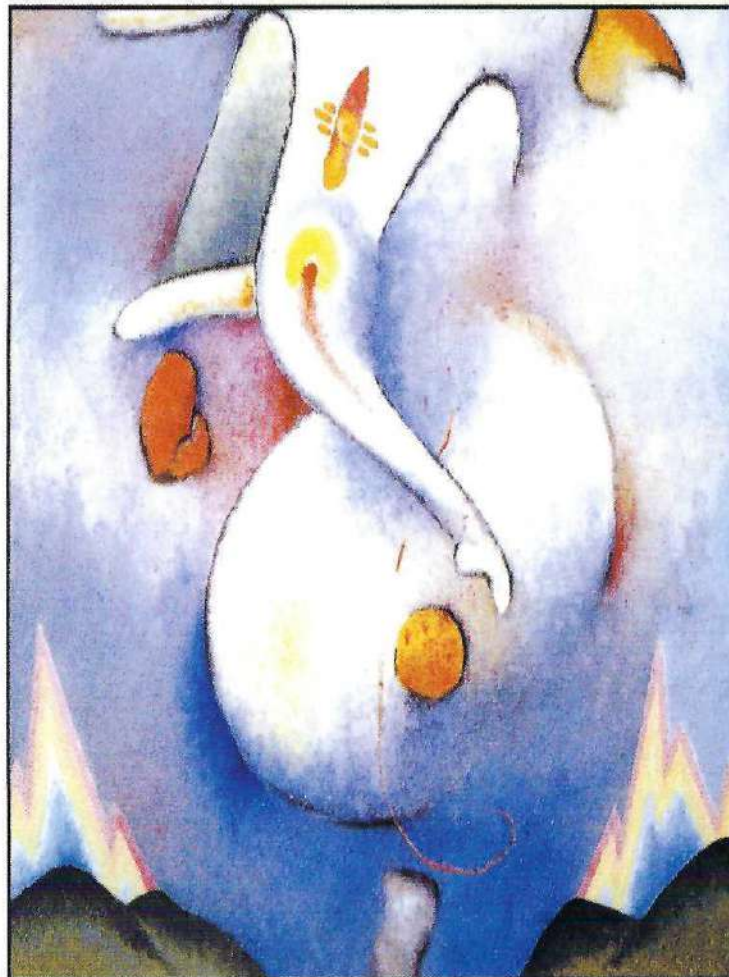
연출/ 김귀선



최문정-지견숙역



김태영-나용두역



- 음악 : 남상진
- 진행 : 박효정
- 조명 : 윤종국
- 무대 : 김태영
김귀선
- 기획 : 22c기획

단원모집

연극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속초시 영랑동 570-5 속초문화회관극단 굴렁쇠
TEL (033) 631-8070
H P 017-371-8070 (대표자)

慶

한국 연극 협회 속초지부 극단 굴렁쇠 제 20회 정기 송년공연

祝

문우당 서림

대표
이 민 호

속초시 청학동 645-4
대표전화 : 631-3900
제 1매 점 : 635-8056
제 2매 점 : 635-8055



단천 면옥

대표
김 강 석

TEL : 033)637-6677~8

매뉴 - 회냉면(가자미회, 명태회), 갈비탕, 육개장
편육, 수육, 소머리 국밥, 불고기 백반



사단법인 대한태권도협회
백두 태권도 체육관
인천체대 태권도부 동문(18기)



관장 이 상 국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625-10
체육관 : (033) 635-3545
H P : 011-375-9626
www.bakdoo.co.kr



미정뷔페

대표 허 우 철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12-8
전화 : 033) 636-3125
H.P : 011-366-0990

웨딩뷔페, 돌, 회갑, 각종 대소연회 출장전문

로 카 스 (주)



대표
이 한 수

강원도 속초시 교동
TEL:033)637-7500

대한민국 최고의 록 페스티벌을
만드시 계속 되어 줍니다.

설악 현수막

- 현수막 하청전문. 자재 도/소매 -

대표
조성주. 양천석

강원도 속초시 교동 636-3
TEL : 637-2688
FAX : 637-3787

신속, 정확한 납기를 준수합니다.

자동차 정비의 모든 것

영 통 자 동 차 공 업 사

최고급 도장재료 사용
평생 A/S 보장

대표 김명동
T. 632-1198

조양동 속초해수욕장입구 우측

용띠 개띠

인생은 도박이다. 우린 매 순간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해야 될 때가 너무도 많다. "동업을 해, 말어?" 했다가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 말어?" 한번 선택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느냐의 문제와 직결 되는 것이다.

나용두는 52년생 용띠다. 꼼꼼하고 매사에 빈틈이 없는 만화가다. 지전숙은 58년 개띠다. 덜렁대도 당찬 잡지사 기자다.

지전숙은 나용두를 취재하기 위해 그의 작업실을 찾는다. 그곳에서 야구중계를 TV로 보다가 들은, 어떤 선수의 출신교를 놓고 "자기가 맞다"고 서로 다투게 된다. 이 싸움이 극에 달하여 결국 들은 내기를 걸게 된다.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벌칙이다. 이 내기에서 이긴 나용두는 지전숙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들은 결혼한다. 결혼 생활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로 곤잘 위기에 처한다. 나용두는 말 끝마다 "여자가 왜가지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면박을 준다. 지전숙은 나용두를 사랑하면서도 그의 "남성 우월주의"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들은 의견대립을 보일 때마다 "내기"를 하여 승자에게 선택의 권한을 준다. 그것은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공평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얼음위에 오래 서있기시험"이라든가, 혹은 "63빌딩의 한달 전기세"를 맞추는 사람에게 아파트 딱지를 사느냐, 안 사느냐의 선택권을 주는 것. 별난 부부의 사랑 얘기가 빠르게 진행된다.

첫 만남부터 결혼, 신혼여행, 출산, 결별, 재결합을 거치면서 결국에 사랑과 화합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쁜 사람의 이쁜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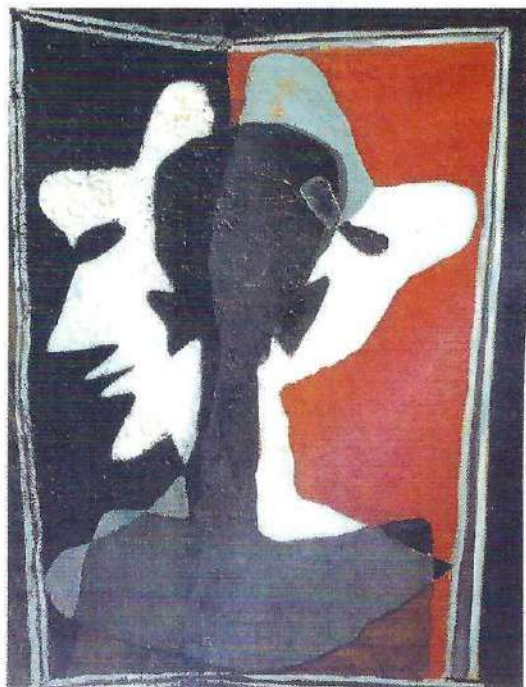
코미디와 감동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고급 폭소극"이다.



발표작

그것은 목탁 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불 좀 꺼 주세요.
피고지고 피고지고
돼지와 오토바이
아름다운 거리
그래 우리 암스텔담으로 가자
문디
돌아쳐서 떠나라
치녀비행

작
품
줄
거
리



극단 굴렁쇠

단체연혁 및 공연실적

단체연혁

- 1990.07. 꼭두극단으로 창단
- 1990~91.06. 햇님달님 외 6편 공연(아동극)
- 1992.11. 성인극단으로 전화
하나님 비상이예요
- 1993.05 새장과 화장실
- 1993.09 위기의 여자
- 1994.12 약장사
- 1995.04 돼지와 오토바이
- 1995.10. 극단 굴렁쇠 제1기 Work Shop 실시
- 1996.04 그대여 또다시 바다로 가거든
- 1996.10. 서툰 사람들
- 1996.12 허탕
- 1997.05 불좀 꺼 주세요
- 1997.11 피고지고 피고지고
- 1998.11 호적등본
- 1998.12. 극단 '굴렁쇠' 제2기 Work Shop 실시
- 1999.04 작은할머니
- 1999.12 도덕적 도둑
- 2000.02. 극단 굴렁쇠 제3기 Work Shop 실시
- 2000.03 돼지비계

- 박재서 작 / 김귀선 연출
- 최재도 작 / 김귀선 연출
- 보보르 작 / 김귀선 연출
- 오래석 작 / 장규호 연출
- 이만희 작 / 김인환 연출
- 최재도 작 / 장규호 연출
- 장 진 작 / 장규호 연출
- 장 진 작 / 장규호 연출
- 이만희 작 / 장규호 연출
- 이만희 작 / 장규호 연출
- 이만희 작 / 장규호 연출
- 엄인희 작 / 김귀선 연출
- 다리오 포 작 / 박영미 연출
- 오래영 작 / 김귀선 연출

공연실적

- 1996. 전국연극제 우수상 수상 (그대여 또다시 바다로 가거든)
- 1995. 강원연극제 우수상, 연출상 수상 (돼지와 오토바이)
- 1996. 강원연극제 대상, 연기상 수상 (그대여 또다시 바다로 가거든)
- 1997. 강원연극제 우수상 수상 (허탕)
- 1998. 강원연극제 우수상, 연출상 수상 (피고지고 피고지고)
- 1999. 강원연극제 우수상, 연출상 수상 (작은할머니)
- 2000. 강원연극제 대상, 연기상 수상 (돼지비계)
- 2000. 전국연극제 최우수연기상 수상 (돼지비계)

지역의 문화·예술을 아낌답게 가꾸어 갑시다.

대추나무한의원



원장 박승민

속초시 교동 932-2
(현대자동차 옆)
TEL: 033) 636-3550

부영사우나



대표
장 준 호

속초시 조양동 1498-6
TEL: 033) 633-1818



BERKELEY

Kim Ji Young
Mangwon Sokkang Chungchok 422-75
TEL: (033) 631-8762 FAX: 033-631-8763
H. P. 011-879-7263

절음과 낭만! 추억을 만끽할 수 있는 속초 최고의 명소



믿음·소망치과 그룹

원장: 박명중, 홍지원, 황성

TEL: (033) 633-3535

그간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이전 개업** 하게 되었습니다

SHINSEGI **아하**



대표
최 호 순

주식회사 신세기통신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502-47
전 화 636-0170 · 0017
팩 스 636-0176
핸드폰 017-370-0704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귀하의 품격을 최상의 가치로.....

속초사무소 / 소장
이 종 민



속초시 교동 636-3
TEL:635-8900,8959
H.P:011-375-7301



예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변호사 **이 종 식**



속초시 동명동 466-58
TEL : 636-6231~2

Hertz

어디서나 함께하는
錦湖렌터카



속초지점/지점장
최 승 철

속초시 조양동 636-38
TEL:033)632-8000

푸른 바다와 장엄한 동해의 일출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



이 경 호

경호횃집

속초시 동명동 (영금정해상공원내)
TEL : 632-4355



株式會社 **保 阜 綜 合 建 設**

대표이사

장 우 정

예술인 여러분이 피와 땀으로 예술문화를 선도하듯
강원도의 건설문화를 한 차원 높여 가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교동 983-3
TEL:033)635-0411~3
H. P:011-375-7487